

## 9월 미국 금리동결과 향후 전망

### 미국 금리동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반응

-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)는 9월 20~21일(현지시간)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.25~0.50%로 동결함
  - 8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및 제조업 PMI,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 보다 부진하여 미국 경제성장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하락하면서 금리동결에 영향
  - FOMC 위원 10명 중 3명은 0.25%p 인상에 찬성
  
- 금융시장 상황(뉴욕 오후 4시 30분 기준)
  - 금리동결 발표 이후 다우지수 상승 및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 하락
  - 원화(NDF) 및 엔화는 강세
    - 주가(종가 기준) : 다우 0.9% 상승, S&P 1.1% 상승  
EURO STOXX 0.6% 상승
    - 10년물 국채(미국) : 1.690% → 1.651%
    - 달러/유로 : 1.1189 → 1.1192달러
    - 엔/달러 : 101.8(뉴욕 21일 오전 3시 기준) → 100.4엔
    - 원화 NDF(1개월) : 1117.55 → 1104.15원

### 미국 금리인상 시기 전망

- Janet Yellen 연준 의장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서 금리인상의 여건은 강화되었으나 당분간(for the time being) (경제)진전의 증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”며 “경제전망에 대한 단기적 위험(near-term)은 대략 균형상태(roughly balanced)”라고 언급

- 지난해 12월 금리인상 직전 경제전망에서 “거의 균형상태(nearly balanced)”라고 언급했던 전례에 비추어 이번 성명서 내용은 금년중 금리인상 가능성 강화를 시사
- 연준이사 및 지역연준 총재(17명)의 금리전망에서 10명이 금년중 1회 인상, 4명이 1회 이상 인상을 예상
- 장기 금리전망은 2017년 1.125%(2회 인상), 2018년 1.875%(3회 인상)로 6월 전망에 비해 하락

\* 6월 금리전망 : 2017년 1.625%, 2018년 2.625%

□ 금융시장에서는 연내 1회 금리인상 단행 시 미국 대선(11.8일)을 고려하여 금리인상 시기를 12월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함

\* 향후 FOMC 회의 일정 : 11.1~2일, 12.13~14일

- 미국 연방기금금리 선물거래로 산출한 12월 미국금리 인상확률은 7월의 44.9%에서 금리동결 발표 직후 61.2%로 상승
- Financial Times(9.22일)는 “2016년 금리인상의 단계가 설정되었다”며 금리인상의 여건이 강화되었다는 성명서 내용은 금년중 금리인상에 대한 강한 신호라고 언급
- Amherst Pierpont Securities LL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Stephen Stanley는 “이번 성명서는 예상보다 더욱 매파적(hawkish)이었다”며 “금리인상의 엔진을 가동했다”고 평가(Bloomberg, 9.22일)

- 그러나 일부에서는 하반기 각종 이벤트 및 글로벌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12월 금리인상을 단언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음
  - Washington Post(9.19일)는 “글로벌 리스크 및 목표치 보다 낮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Fed는 미국 경제성장을 가늠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”라고 보도
  - Daniel Tarullo 연준 이사는 지난 9.9일 인터뷰에서 “고용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진전되었으나, 물가상승률은 Fed의 목표치인 2% 밑에 머물러 있다”며 “지속적인 물가상승의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길 원한다”고 언급
- 한편 연준은 금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.0%에서 1.8%로 낮추었으며 장기 성장 전망치도 생산성 저하, 인구고령화 등을 이유로 종전 2.0%에서 1.8%로 하향 조정

주요 IB의 향후 미국 정책금리 전망

기관	2016.4Q	2017.1Q	2017.2Q
Standard Chartered	0.25~0.50	0.25~0.50	0.25~0.50
BNP Paribas	0.50~0.75	0.50~0.75	0.50~0.75
Societe Generale	0.50~0.75	0.50~0.75	0.75~1.00
Citi	0.50~0.75	0.50~0.75	0.75~1.00
Deutsche Bank	0.50~0.75	0.50~0.75	0.75~1.00
Goldman Sachs	0.50~0.75	0.50~0.75	0.75~1.00
JP Morgan	0.50~0.75	0.50~0.75	0.75~1.00
Barclays	0.50~0.75	0.50~0.75	0.75~1.00

자료 : Bloomberg(9.20일 기준)

담당: 권민지 책임연구원  
 김민준 책임연구원  
 Tel. 051) 620-3187